

중국의 2007년 섬유수출 전망

- ‘위안고’, ‘입찰’, ‘환부세 인하’ 등이 장애물

중국 상무부(商務部)는 전국상무공작회의(全國商務工作會議)에서 상무부의 2007년 중대임무(重大任務)로서 ‘흑자삭감(黑字削減), 소비촉진, 시장건설’을 제시하였다. 특히 무역흑자삭감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정하고, 무역흑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대외무역 발전에 불리(不利)하다고 지적하였다.

2006년 1~11월의 전국대외무역과 섬유무역의 누계(累計)는 중국의 무역흑자 중에서 섬유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72.79%로 매우 높다. 무역흑자 삭감을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2006년의 섬유수출구조와 특징을 되돌아보면서, 2007년의 중국 섬유수출의 구성을 전망해 보겠다.

2006년의 섬유수출은 원재료(原材料), 노동력 코스트, 인민위안 환율이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환부율(輸出還付率) 인하 등 여러 마이너스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절대수(絕對數)로는 계속 상승경향을 보일 것이다.

2006년의 수출신장은 1, 2월에 2005년 동기(同期)를 밑돌았으나 제2/4분기부터는 평균 24%의 신장을 계속 보였고, 1년간을 통하여 보면 수출규모, 신장률 모두 2005년의 수준을 웃도는 결과를 보였다.

2006년에는 또한 구미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 시장구조가 합리화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수입제한, 반덤핑(反dumping), 반보조(反補助) 등 구미의 계속되는 무역보호조치로 수출시장이 합리화되어 구미시장에 의존하

던 구조가 변화하였다.

전체 중에서 구미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1~11월에 32.8%이던 것이 2006년에는 30.6%로 줄었다. 이와는 달리, 구미시장 이외의 한국, 터키, 아세안, 아프리카, 멕시코 등 여러 시장으로의 수출이 분명히 증가하여, 한쪽으로 치우쳤던 수출시장의 분포가 새롭게 달라진 모양이 되었다.

2007년을 미리 내다보면, 여러 압력요인 중에서 첫째로 인민위안고(人民幣元高)문제가 있다. 앞으로 계속 인민위안의 환율이 오를 것이 예상되며,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각국의 왕성한 니즈(needs), 중국의 강대(強大)한 수출능력을 배경으로 무역흑자가 유지되는 상태로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제품의 가격우위성(價格優位性)이 없어져 수출기업에 대한 압력이 커지게 될 것이다.

둘째로는 수출허가규모입찰(輸出許可規模入札)의 허들(hurdle, 障礙物)이다. 2007년 구미로의 수출규모 제1회 입찰부터 ‘일정기간 내의 무역실적’이라는 새로운 허들이 하나 더 많아졌다. 이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어, 그 전보다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업 수가 줄게 된다.

또 하나의 허들은 미국이 2006년 10월에 실시한 앤티덤핑(anti-dumping)조사규정에 관한 조정이다. 이에 의하면 ‘비시장경제국(非市場經濟國)에 속하는 기업이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사용한 원료의 33% 이상을 시장경제국에서 조달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조항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면 대체국(代替國)가격으로 코스트를 확정하고 덤핑행위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즉 흑(黑)으로 판단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 기업에게는 큰 압력이 된다. 이 외에 EU 등의 기술장벽(技術障壁)도 경시할 수 없다.

셋째는 수출환부세율 인하(輸出還付稅率引下)의 영향이 갑자기 발생하였다.

2006년 9월에 일부 섬유제품에 대한 수출환부세율이 13%에서 11%로 인하되었다. 과도기적 조치(過渡期的 措置)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부세율 인하의 직접적인 영향은 2007년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